

청소년 안녕감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사회자본의 매개효과 -학교부적응 청소년 대상으로-

송경미, 조성제*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The Effects of Youth Well-being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with Mediation Effect of Community Social Capital -for School-maladjusted Youth-

Kyeng-my Song, Sung-je Cho*

Department of Culture and Arts Contents,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안녕감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사회자본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파악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울산광역시 지역의 학교부적응 청소년 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토대로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통한 3단계 매개효과 분석과 Sobel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청소년 안녕감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 안녕감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역사회자본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청소년 안녕감이 높아지고, 다양하며 유의미한 정(+)적 지역사회자본이 많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 및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진로탐색과 결정에 도움을 주는 전문화된 상담서비스의 체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 안녕감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자본을 통한 다양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adolescent wellbeing of school maladjusted teens on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the mediating effect of community capital. The subjects were 116 school maladjusted teens in Ulsan metropolitan area. As analysis method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three-step mediation effect analysis, and a Sobel test were performed based on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R program. As a result, adolescent wellbeing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The effect of adolescent's wellbeing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was confirmed. This means that the self-efficacy of career decisions will improve as the adolescent's wellbeing of school maladjusted teens increases and there is more positive community capital. Overall,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and utilize educational programs that can improve the sense of youth wellbeing and implement systematic intervention of specialized counseling services helpful in career search and decision-making in light of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youth. Therefore, to improve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f school-maladjusted teens, reinforcement of teenage wellbeing and various strategies utilizing community capital will be necessary.

Keywords : School Maladjusted Youth, Youth Well-being,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ommunity Social Capit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본 논문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Sung-je Cho(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

email: chosj715@daum.net

Received August 24, 2020

Accepted January 8, 2021

Revised October 5, 2020

Published January 31, 2021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청소년기는 유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시기로 성장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체험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청소년기는 자신의 정체감을 찾는 발달상의 과도기적 시기이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방향과 갈등,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자아를 탐색하고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로 진로에 대한 탐색 시도와 새로운 직업 세계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탐색을 통해 본격적인 진로발달이 시작되고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진로선택은 자기효능감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를 선택하고 효과적으로 계획 추진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효능감이 낮을 경우 개인이 원하는 직업에 대해 선택을 보류하거나 배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따라서 청소년 안녕감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요인에 해당할 수 있다[3]. 그 이유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심리적 안녕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4]. 따라서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업에 대한 주체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동기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5]. 청소년 안녕감은 ‘청소년들 개개인이 느끼고 인지하는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만족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6], 인생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7]. 또한 청소년 안녕감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8]에 청소년기에 다가올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의 안녕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고찰하면,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임파워먼트가 안녕감에 서로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9]. 또한 사회적 자본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청소년의 안녕감 향상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10]. 특히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긍정적인 심리적 안녕감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1]도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 안녕감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한편 심리적 안녕감의 자아수용, 대인관계, 자율성은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12], 자기효능감의 증진은 청소년의 진로탐색 행동과 진로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13]. 진로 결정 문제에 직면하게 될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청소년들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인 청소년 안녕감과 환경적인 변인인 지역사회자본을 연구하여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므로 진로결정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역사회 자본은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정서적 역량에 유의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소년의 중요한 발달적 자원을 알 수 있었다’[14].

청소년의 지역사회 자본은 진로정체감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면서 동시에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15]. 또한 ‘청소년의 정서적 역량은 지역사회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경로에서 유의한 부분 매개효과를 보여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도 확인하였다’[14]. 또한 ‘청소년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 청소년의 문화자본, 학교사회자본, 지역사회자본으로 나타났다’[16].

이와 같은 결과로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 자본의 매개효과를 연구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안녕감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자본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안녕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지역사회자본 간의 관계를 탐색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 부적용 청소년대상으로 청소년 안녕감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학교 부적용 청소년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학교 부적용 청소년들의 진로 미결정이 진로결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청소년 안녕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이에서 지역사회자본의 매개역할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연구의 모형은 다음의 Fig.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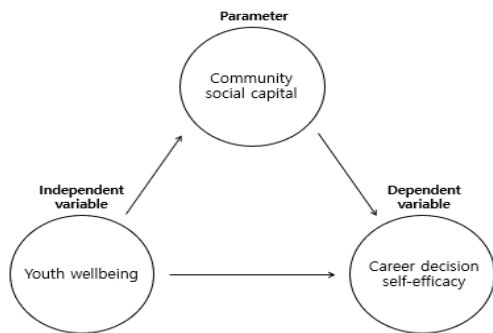


Fig. 1. Model of research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안녕감, 지역사회자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있다. 그리고 세 변수들의 상관관계 및 청소년 안녕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지역사회자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부적응 청소년 안녕감, 지역사회자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청소년 안녕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청소년 안녕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관계에서 지역사회자본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 5월 11일부터 2020년 6월 18일까지 울산광역시 지역의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사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설문취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자료는 총 116부를 수집하여 연구 자료를 분석하는데 활용하였다.

2.2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측정변수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토대로, 측정변수들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 측정변수

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인 청소년 안녕감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매개변수로써 지역사회자본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의 3단계 매개효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검증에 Sobel's test를 활용하였다.

2.3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청소년 안녕감, 지역사회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2.3.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Taylor와 Betz가 개발하고[1] Betz와 Voyten이 수정한 단축형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 CDMSES-SF)[17]를 이은경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18]. 이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각 문항은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직업들에 관한 정보를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나는 여러 가지 전공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목표를 위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나는 만약 내가 선택한 전공을 공부할 때 어려움에 접하게 되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나는 처음 선택한 진로나 분야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전공이나 진로의 대안들을 찾아낼 수 있다.', '나는 나에게 이상적인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등이 다[18].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5점)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자기보고용 리커트5점 척도로 높은 점수일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인 내적일관성(Cronbach's α)값은 .98로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6이상~1을 만족하므로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2.3.2 청소년 안녕감

본 연구에서 청소년 안녕감은 Keyes가 개발한 SWBS(Subjective Well-Being Scale)[19]를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현주 외가 수정·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20]. 이 척도는 정서적 안녕감 1, 2, 3문항, 사회적 안녕감 4, 5, 6, 7, 8문항, 심리적 안녕감 9, 10, 11, 12 문항 등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각 문항은 심리적 안녕감의 경우, '하루 하루 내가 짠 계획대로

충실하게 살고 있다.', '친구들과 따뜻하고 믿을 만한 관계를 맺고 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경험들을 했다.', '나만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자신(감)이 있다.' 등의 4문항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안녕감의 경우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사회가 더 나아지고 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선하다.', '사회는 내가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인다.' 등의 5문항이다. 정서적 안녕감의 경우, '행복하다.', '사는 것이 재미있다.', '만족스럽다.' 등의 3문항이다[20]. 각 문항은 6점 리커트 척도(1은 전혀, 2는 한 달에 두세 번, 3은 일주일에 한 번, 4는 일주일에 두세 번, 5는 거의 매일, 6은 매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 안녕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5번 문항은 제외하고 신뢰도와 타당성이 양호한 11문항만 사용하였다. 청소년 안녕감 전체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값은 .95로써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값은 심리적 안녕감이 .87, 사회적 안녕감은 .91, 정서적 안녕감이 .97로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2.3.3 지역사회자본

지역사회자본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자원을 얻기 위한 자산의 총합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인 네트워크 문항은 Williams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고려하여 고안한 척도[21]를 청소년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한 양소은[2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신뢰 문항은 김영옥[23]의 대인신뢰도와 김태룡의 제도신뢰 척도를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며[24], 호혜성 문항은 홍영란 등의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25]를 김미혜가 재구성하여 사용한 척도

를 사용하였다[26]. 이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네트워크(16문항)에 관한 질문은 구체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 '조언을 줄 사람', '대화할 사람', '동네 밖의 일에 대한 관심', '새로운 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9문항)에 관한 질문은 '가족 간 신뢰도', '이웃 간 신뢰도', '거래관계 신뢰도', '지방의 회에 대한 신뢰도', '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도', '학교에 대한 신뢰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혜성(5문항)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면 훗날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타인에게 도움 받은 경험이 있다' 등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8개(1, 2, 3, 4, 13, 14, 16, 27번)문항은 제외하고 신뢰성과 타당성이 양호한 22개 문항만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자본이 많음을 의미한다. 각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값이 결속네트워크는 .92, 교량네트워크는 .91, 신뢰는 .94, 호혜성은 .82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각 측정도구의 내용을 보면 다음의 Table 1과 같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의 Table 2와 같다. 학교부적응 청소년은 총166명으로 성별은 남자 55명(47.4%), 여자 61명(52.6%)으로 조사되었다. 거주지역은 도시 107명(92.2%), 농어촌 3명(2.6%), 기타 6명(5.2%)이며, 형제순위는 외동이 15명

Table 1. Configuration contents of measurement tool

Factor			Number of questions	Question Number		Cronbach's α	
Independent variable	Youth wellbeing	Emotional well-being Social well-being Psychological well-being	12(11)	1, 2, 3 4, 5, 6, 7, 8 9, 10, 11, 12	5 except	.97 .91 .87	.95
Dependent variabl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25	1~25		0.98	
Parameter	Community social capital	Solidarity network Bridge network Trust Reciprocity	30(22)	1~8 9~16 17~25 26~30	(1, 2, 3, 4,13,14, 16,27 except)	.92 .91 .94 .82	
Total number of questions			67(58)				

(12.9%), 첫째 37명(31.9%), 둘째 43명(37.1%), 기타 21명(18.1%)으로 나타났다. 부모연령은 40대가 67명(57.8%), 50대가 32명(27.6%), 30대가 10명(8.6%), 기타 7명(6%)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		Total N=166	
		Frequency	Ratio(%)
Gender	Male	55	47.4
	Female	61	52.6
Residence	City	107	92.2
	Farming and fishing village	3	2.6
	Etc.	6	5.2
Sibling rank	Only one	15	12.9
	First	37	31.9
	Second	43	37.1
	Etc.	21	18.1
Parent age	30s	10	8.6
	40s	67	57.8
	50s	32	27.6
	Etc.	7	6

3.2 대상자의 청소년 안녕감, 지역사회자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정도

각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모든 요인의 표본크기는 116명이었으며, 청소년 안녕감은 6점 총점기준에서 정서적 안녕감 평균 4.01, 사회적 안녕감 3.38, 심리적 안녕감 3.87, 진로결정 효능감은 5점 총점기준에서 평균 3.48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자본은 5점 총점에서 결속네트워크 평균 3.55, 교량 네트워크 3.48, 신뢰 2.87, 호혜성 4.11로 나타났다.

3.3 상관관계

각 측정변수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청소년 안녕감, 결속 네트워크, 교량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모두가 서로 정(+)의 상관관계($p < 0.001$)를 보였다. 이는 연구자가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변수의 방향성이 연구결과와 일관되어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for each factor

Factor		Sample size	Average	Standard deviation
Youth wellbeing	Emotional well-being	116	4.01	1.61
	Social well-being	116	3.38	1.52
	Psychological well-being	116	3.87	1.36
Community social capital	Solidarity network	116	3.55	1.01
	Bridge network	116	3.48	0.98
	Trust	116	2.87	1.04
	Reciprocity	116	4.11	0.78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116	3.48	0.93

3.4 청소년 안녕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지역사회자본의 매개효과

본 연구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청소년 안녕감, 지역사회자본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청소년 안녕감과 지역사회자본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청소년안녕감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자본이 클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와 검증결과는 다음의 Table 5, 6과 같다. 1단계 청소년 안녕감이 지역사회자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심리적 안녕감 $\beta = 0.40,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청소년 안녕감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심리적 안녕감 $\beta = 0.55, p < .001$)을 주었다. 따라서 독립변수 청소년 안녕감이 종속변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2단계 조건을 충족하였다. 3단계에서 청소년 안녕감(심리적 안녕감 $\beta = 0.29, p < .05$)과 지역사회자본($\beta = 0.66, p < .001$)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2단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안녕감의 값이 0.55에서 0.29로 감소하였다. 매개효과와 모형은 다음의 Fig.2와 같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안녕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지역사회자본의 부분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Z = 6.25, p < .001$). 즉,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안녕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지역사회자본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Table 4.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measured variables

(N=166)

		Youth wellbeing			Community social capital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Emotional well-being	Social well-being	Psychological well-being	Solidarity network	Bridge network	Trust	Reciprocity	
Youth wellbeing	Emotional well-being	1.00							
	Social well-being	0.74***	1.00						
	Psychological well-being	0.76***	0.80***	1.00					
Community social capital	Solidarity network	0.68***	0.70***	0.72***	1.00				
	Bridge network	0.49***	0.59***	0.69***	0.70***	1.00			
	Trust	0.61***	0.74***	0.64***	0.70***	0.62***	1.00		
	Reciprocity	0.54***	0.55***	0.57***	0.70***	0.61***	0.54***	1.00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0.55***	0.63***	0.70***	0.75***	0.75***	0.56***	0.67***	1.00

***p<.001

Table 5. Analysis of mediating effect

(N=166)

Step	Variables	Nonstandard Coefficient	β	t	R ²	F
		B				
Step1	Youth wellbeing → Community social capital	0.25	0.40	4.03***	0.66	73.90
Step2	Youth wellbeing →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0.38	0.55	4.56***	0.49	38.12
Step3	Youth wellbeing →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0.20	0.29	2.62*	0.64	52.04
	Community social capital →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0.74	0.66	6.85***		

*** p<.001, * p<.05

Table 6. Sobel test result for mediation effect

Path between variables	B(SE)a	B(SE)b	Z
Independent variable => parameter => dependent variable			
Youth wellbeing => Community social capital =>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81(.06)	.69(.10)	6.25***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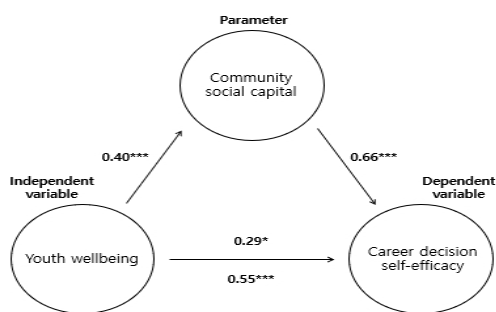


Fig. 2. Mediating effect model

4. 결론 및 제언

4.1 연구결과 및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안녕감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사회자본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안녕감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 안녕감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역사회자본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청소년 안녕감이 높아지고, 다양하며 유의미한 정(+)적 지역사회자본이 많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4.2 논의

주요요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안녕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지역사회자본 모두 서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 안녕감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요인 중에서 청소년의 안녕감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인다는 선행 연구들[3,4]과 맥락을 같이하였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인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경우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청소년 안녕감이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즉,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의 변인은 진로탐색 행동과 진로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13]. 또한 정서적 역량과 학교적응에 유의하고 직접적인 영향 변수[14]로 설명되고 있는데 본 연구 결과 역시 이러한 주장을 따른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진로탐색 행동과 진로결정 향상을 위해 심리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에게 전문화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 보건상담센터를 넘어서는 '학생진로심리상담소' 등의 설치 및 운용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 교내의 전문 심리상담사를 채용하여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진로탐색과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3단계 매개효과 검증과 Sobel 검증 결과, 청소년 안녕감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역사회자본의 부분매개효과가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자기효능감, 청소년의 문화자본, 학교사회자본, 지역사회자본 등이라는 선행연구들[16]과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청소년 안녕감 및 지역사회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기반의 문화자본, 학교사회자본, 지역사회자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청소년 진로결정 멘토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즉,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자본의 변인은 청소년의 안녕감과 학교적응 및 정서적 역량에 유의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13,14]로 설명되고 있는데 본 연구 결과 역시 이러한 주장을 따른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의 안녕감과 학교적응 및 정서적

역량 특성을 지닌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지역사회자본을 통하여 긍정적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도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가 매우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청소년 안녕감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안녕감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행동과 진로결정 향상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외현적 자기애를 가진 청소년의 대인관계의 수준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자존감이 높은 점을 강점으로 하되 공격성과 분노를 조절하여 자기개념 명확성의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훈련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를 가진 청소년의 대인관계의 수준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개념 명확성에 초점을 맞추어 심리치료 및 자존감 향상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간접적인 개입을 함으로써 대인관계에서의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외현적인 특성을 각각 분리하여 자기애와 관련이 높은 자기개념 명확성과 대인관계의 영향을 미치는지 밝힘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혔다.

둘째, 지역사회자본이 청소년 안녕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에서 부분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활용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4.3 제언

이상과 같은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기입식 측정을 통해 자료를 얻었다.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에 있어 교사, 친구 등에게 인정받고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을 의식하여 주관적 판단으로 가치 있게 여겨지는 문항에 영향을 받아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인 청소년 안녕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등의 수준에 따라 다른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준별 차이를 비교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K. M. Taylor, N. E. Betz,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22, No.1, pp.63-81, Feb. 1983.
DOI : [https://doi.org/10.1016/0001-8791\(83\)90006-4](https://doi.org/10.1016/0001-8791(83)90006-4)
- [2] E. J. Lee, "The Effect of the Career Group Consultation Program for Multi-talented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Society: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4, No.3, pp.621-636, Aug. 2002.
- [3] H. J. Kim, M. W. Lee, "The Effects of Career Reading Treatment Program on Academic Self-Efficien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for Teens to Overcome Learning Inorganic Power", *Reading Treatment Research*, Vol.6, No.1, pp.1-21, Dec. 2014.
- [4] H. W. Jeong,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Preliminary Early Childhood Teachers: Mediating Effect of Career Attitudes", *Korean Teacher Education Research*, Vol.31, No.1, pp.95-115, Mar. 2014.
DOI : <http://doi.org/10.24211/tikte.2014.31.1.95>
- [5] H. T. Jeon, J. H. Kwon, "Verification of structural models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career stress, social support, and sense of self-efficac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cademic confer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Human Development*, No.12, pp.93-93, May 2016.
- [6] Y. R. Choi,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Well-being according to Adolescent's Gender-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Ego-Identity*, Ph.D. dissertation, Hanse University Graduate School, pp.8-11, Jul. 2017.
- [7] M. C. Roberts, K. J. Brown, R. J. Johnson, & J. Reinke, *Positive psychology for children :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p.663-675.
- [8] Y. S. Kim, J. H. Son, "Relationship between late childhood attachment and adolescent sense of well-being : medium effect of child-parent matching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iency", *Youth Academy*, Vol.25, No.6, pp.221-247, 2018.
DOI : <https://doi.org/10.21509/KIYS.2018.06.25.6.221>
- [9] H. J.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and Well-being: mediating effects of Empower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1, No.4, pp.181-201, Apr. 2014.
- [10] K. S. Kim.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Receptiveness of Teenagers",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Academic-Industry Technology*, Vol. 20, No.1, pp.297-303, Jan. 2019.
DOI : <https://doi.org/10.5762/KAIS.2019.20.1.297>
- [11] D. Y. Shin, *Influence of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perceived by students and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on high school student's academic self-efficacy ability*,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2014.
- [12] S. A. Choi, "Influence of Psychological Self-Efficacy on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Line Dance Participants", *The Journal of Korean Dance*, Vol.36, No.4, pp.317-339, 2018.
DOI : <http://dx.doi.org/10.15726/jkd.2018.36.4.014>
- [13] M. S. Kim, E. Y. Ko, "Verification of the effects of youth self-efficiency, self-searching behavior, and self-retrieval cross-determination", *Youth Culture Forum*, pp.51-79, 2020.
- [14] M. H. Jung, "The Effects of Community Capital on School Adaptation - Focused on the Effects of Emotional Capacity of Youth", *Community Welfare in Korea*, Vol.72, pp.63-87, 2020.
- [15] S. Y. Bae, Y. K. Kang, S. Y. Ahn, S. H. Hong, "The effect of the social capital of adolescents on career identity: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mobile phone dependence", *Studies on Korean Youth*, Vol.31, No.2, pp.263-290, May 2020.
DOI : <http://doi.org/10.14816/sky.2020.31.2.263>
- [16] S. M. Han, M. S. Ohem, "Factors Influencing the Career Maturity in youths",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Vol.31, No.4, pp.189-206, 2017.
DOI : <http://dx.doi.org/10.18398/kilgas.2017.31.4.189>
- [17] N. E. Betz, K. K. Voyten,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46, No.2, pp.179-189, Dec. 1997.
<https://doi.org/10.1002/j.2161-0045.1997.tb01004.x>
- [18] E. K. Lee, *A study on the effect of self-efficacy upon the career development*, Ph.D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01.
- [19] C. L. M. Keyes, "The subjective well-being of America's youth : Toward a comprehensive assessment". *Adolescent and Family Health*, Vol.4, No.1, pp.3-11, 2006.
- [20] H. J. Lee, M. N. Lee, I. S. Choi, "An analysis of the justification and quality of life of Korean youth safety measures (K-WBSA) is conducted.", *Educational Psychology*, Vol.22, No.1, pp.301-315, Mar. 2008.
- [21] D. Williams, "On and off the'Net: Scales for social capital in an online era",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Vol.11, No.2, pp. 593-628, Jan. 2006.
DOI: <https://doi.org/10.1111/j.1083-6101.2006.00029.>
- [22] S. E. Yang, *Who are they communicating with: connected youth's development of competencies of civic life*, Master's thesis,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Development of Connected Youth, Aug. 2013.
- [23] Y. O. Kim, *The Influence of volunteerism on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 Focused on volunteers*

from the middle, Ph.D dissertation, Hans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1.

- [24] T. R. Kim,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ivic Organizations on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Korean Government Administration Bulletin*, Vol.40, No.3, pp.27-51, 2006.
- [25] Y. R. Hong, T. J. Kim, Y. S. Hyun and J. K. So,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measurement of social capital indicators, Research Report RR 2007-16, Seoul: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26] M. H. Kim, *The Influence of Youth Participation Activities on Social Capital: Focusing on the participation of religious organizations*, Ph.D dissertation,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Graduate School, 2012.
-

송 경 미(Kyeng-my Song)

[정회원]



- 2017년 3월 ~ 현재 :
큰사랑드림컨텐츠연구소 연구원
- 2018년 3월 ~ 현재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컨텐츠학과 석박사과정

<관심분야>

교육, 융합컨텐츠

조 성 제(Sung-je Cho)

[정회원]



- 1997년 2월 :
홍익대학교 대학원 전자계산학과
(이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컨텐츠학과 교수

<관심분야>

데이터베이스, 문화컨텐츠, 교육